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10월호

통권 제 15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9월 교우소식

### 새 교우

♣강충일씨(82년생) : 강북구 미아동 SK아파트 152-907호에 사는 강충일씨는 현재 군제대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은혜와 진리교회 전도사인 고모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등록한 이후로 청년부에 소속되어 청년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광태(57년생)씨, 강정녀씨(59년생) : 군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광태씨와 이들 부부는 군산의 순복음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광태씨는 시무장로로, 강정녀씨는 서리집사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 자녀들을 오래 전부터 서울에 유학을 시켜 온 터라,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야기도회나 수요예배 등에 종종 참석을 했었다.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큰 딸 주희(청년부), 작은 딸 기쁨(중3), 아들 준(중1)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 둘째딸은 다른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고 있

다. 주5일제 근무제 덕에 주중에는 군산에서 있다가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특히 강정녀씨는 중보기도 사역자팀에 소속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안국동 95번지 301호에 사시며 2교구의 구역예배에도 참석하여 구역을 통하여 교회생활에 정착을 하고 있다.



### 출 산

☞윤주영 집사, 김경희 교우 10일(토) 득녀.

### 환 자

☞안경희 교우(원광자, 원명자 집사 모친), 일산복음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 요양중.

☞정영란집사(이삼형집사 부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

☞김용근 집사(이춘우 권사 부군), 상계백병원 1117호.

☞문영임 권사, 분당서울대병원 81병동 6호.

### 감 사

★박정음 장로, 추석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을 위해 쌀 330kg 기증. 각 가정당 10kg씩 배달함.

★고노세희 집사 가정에서 25일(주일)점심 대접.

## 축 하

☞ 김희진 권사, 제70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

## 출 국

☞ 민대홍 장로·정화성 권사, 1일(목) 친지방문차 미국출국.

☞ 조기현 장로, 서울장로성가단 러시아 및 동구라과 순회연주차 출국(14-23).

☞ 송해자 집사, 친지방문차 브라질 출국.

## 이 사

☞ 최명자 집사·진승일 교우, 안양시 안양2동 청원아파트 C-403호. ☎ 031-464-7273

## 구역연합예배

9일 오전 10시 30분에 구역연합예배를 드림으로 후반기 구역예배를 개강하게 되었다. 이번 구역연합예배는 구역에서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강을 준비하였다. 계명의 권사의 사회, 이윤희 집사의 기도, 최문수 집사의 봉헌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박병욱 목사는 골로새서 1:24-25을 가지고 '참된 일꾼'이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전도특강 강사는 충신교회 계인옥 시무권사로 현재 충신교회에서 전도팀의 대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이날 예배에는 80여명의 구역원들이 참여하였고, 식사는 8,9,10교구에서 담당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우리 안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많은 도전이 되었다.

### <강의 요약>

"전도는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전체아래 다음과 같은 원리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 전도는 왜 해야 하나?-우리는 전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고, 세상이 복음을 요청하며, 오늘의 교회에 요청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시기 때문이다.

\* 누가 해야 되나?-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 전도의 조건

1. 나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전도는 쉽지 않다.
3. 전도는 실천해야 한다.
4. 전도는 기도와 병행해야 된다.
5.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수 있다.
6. 전도는 큰 구원(영생의 원리, 구원의 확신)을 전해야 한다.
7. 전도는 예의 있게 해야 된다.
8.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9. 전도된 사람을 반드시 양육해야 한다.

\* 전도의 7대원리

1.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한다.
2.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둔다.
3. 집중적으로 전도할 때 효과가 많다.
4.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해야 한다.
5. 창조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6. 외곽이 두터워지기 전에 전도해야 한다.
7. 성령의 역사에 편승해야 한다.

\* 전도구호

"전도 / 합시다"

"하면 / 됩시다"

"내가 / 합시다"

"지금 / 합시다"

## 소허당 문화강좌 2학기 개강

6일 오전 10시 30분에 소허당 개강예배를 드리고 곧 이어 문화강좌를 시작하였다. 이번 소허당 문화강좌는 화요일은 단전호흡, 목요일은 손뜨게로 진행된다. 단전호흡은 민경숙집사가 계속 진행하고, 손뜨게반은 조정귀권사가 인도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손뜨게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인 문화강좌 외에 25일(주일) 오후 1시에 YWCA의 양선희 간사를 모시고 환경세계 특강을 듣고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세계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으로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우리의 환경에 이로운 세제이다. E.M.은 합성세제 대용품으로 수질정화 및, 공기를 정화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킬 수 있으며, 아

파트, 식당 등의 악취를 제거하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약 20명분의 E.M.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고 특히 교회 밖의 참석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홍보 현수막을 보고 녹색연대에서 많은 홍보를 하여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독거노인 추석 특별 반찬배달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봉사부에서는 독거노인 특별반찬 배달을 하였다. 추석을 3일 앞둔 지난 15일에 봉사자들은 추석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배달해 드렸다. 매 번 독거노인을 위해 떡을 제공하는 조영태집사, 유란임집사 내외는 이번에도 특별히 송편과 떡을 기증해주었고, 박정음 장로는 독거노인을 위해 쌀 330kg을 기증하였다. 전체 33가구에 10kg들이 한 포대씩 반찬과 함께 배달하여 풍성한 한가위의 정성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나눌 수 있었다.

특별히 명절 음식인 송편과 전유어, 나물과 국, 김치, 굴비튀김 등을 마련하였고, 봉사자들은 독거노인들이 추석에 주님안에서 외롭지 않고 은혜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반찬을 배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 늘푸른교실 개강예배

늘푸른교실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7일(수)에 있었다. 박병욱목사는 민수기 14:1-10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푸르른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희망찬 발걸음을 하시기를 촉구하였다.

늘푸른교실은 매주 수요일 예배와 특강, 오후활동을 하며, 가을학기에는 가을운동회와 가을소풍이 있으며 수안보온천으로 나들이를 갈 예정이다.

## 후반기 성경공부 시작

9월 7일부터 후반기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수요일성경공부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강해를 하고 있고, 성경통독반(최창해목사 인도)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주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자훈련(이성철목사 인도)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예수·여성·성서(구회숙목사 인도)는 금요일 오후 7시반에 진행되고 있다.

## 중보기도팀 사역시작

안동교회 한빛여전도회원의 오랜 숙원인 중보기도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지난 9월 13-14일에 친교실에서 이성철 목사의 인도로 중보기도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31명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중보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강 중보기도 사역
- 2강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 3강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 4강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 5강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 6강 병든 자를 위한 기도
- 7강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특히 처음으로 열린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는 한빛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타여전도회 회원중에도 자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모든 교우들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앞으로 기도를 통해 이뤄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서로 깊이 나누기도 했다. 이들 헌신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1시간동안 기도를 하게 된다.

반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반 : 반장-이정숙

신선자 김영한 최야란 송숙연 고옥희 박노향

2반 : 반장-조춘희

홍세진 이종선 김향숙 김휴숙 이윤희

3반 : 반장-김희수

오군자 송영자 장문자 문유심 김혜자

4반 : 반장-김정수

강춘자 김효수 류나영 최령자 최명자

5반 : 반장-장은라

한계명 이춘우 안부강 민경님 강정녀

이들은 9월 28일 수요일예배에 교우들 앞에서 중보기도자 헌신서약을 하였다.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

하나, 본인은 안동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하나,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기도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개인이나 교회기도 제목의 기도들을 하나님께만 아뢰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신한 기도시간을 준수치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중보기도 담당 리더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안동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하나님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선서합니다.



### 중고등부 현장학습

중고등부에서는 9월 11일에 야외예배 겸 현장학습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로 다녀왔다.

제암리 교회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당시 제암리교회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했던 것에 당황한 일본 경찰이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곳이다. 교회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지르며 총격을 가해 23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기독교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은 예배당과 역사자료관 등이 잘 보존되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이날 중고등부에서는 제암리교회의 예배에 교우들과 함께 참석하고 특송을 불렀다. 예배 후에는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한 후 역사자료관을 관람하였고 약 1시간동안 제암리교회 담임목사님의 특강을 들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앞서간 선배들의 신앙과 애국정신을 기리며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 9월 담임목사동정

9월 5일 신학대학교 2학기 개강 (장신대, 서울장신대)

9월 7일 백병원 수요일예배 설교

9월 13-15일 총회 국내 선교부 주관 '2006년 생명살림 목회 계획을 위한 세미나' 발제강연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제90회 총회 개막



본교단 제90회 총회가 지난 9월 26일 대구 인터불고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전국 62개 노회 1천 5백 명의 총대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는 개회예배와 성찬식에 이어 임원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에 안영로목사가 자동승계하고 부총회장에 이광선목사가 당선되는 등 신입원을 선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전자 투표로 시행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이광선목사와 박위근목사가 1차 투표에서 나란히 5백28표를 얻는 접전 끝에 2차 결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천 4백 85표 중 7백81표를 얻은 이광선목사(서울노회 신일교회 시무)가 7백 3표를 얻는 데 그친 박위근 목사를 누르고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이후 익산노회와 포항남노회 등 2개 노회가 신설, 총 62개 노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노회 경계 문제와 관련해 개회와 함께 논란이 예상됐던 총대권 문제가 총회 직전에 모두 원만히 타결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제89회기 총회장 김태범목사는 '위로의 하나님' 제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의 근대사와 같이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영광과 수치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날 역사의 질곡에서 그러하셨듯이 이미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서 "부끄러움을 면케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

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위로보다는 비판을 일삼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과 같이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을 얻어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구원하는 위로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제90회기 총회장에 취임한 안영로목사는 김동엽목사(목민교회 시무)를 서기에 선임하는 등 제90회기 총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을 선정, 발표하고 취임사를 통해 "중대한 도전과 변화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총회장으로서의 직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뒤 "2007년 독노회 창립과 성령대부흥운동 1백 주년을 맞이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자 개개인의 갱신과 회개운동은 물론 세계 선교에도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90회기 총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 안영로목사(전남노회 광주서남) <부> 이광선목사(서울노회 신일) ▲서기 : 김동엽목사(영등포노회 목민) <부>김정호목사(용천노회 변동제일) ▲회록서기 : 강병만목사(서울강남노회 청담) <부>김희원장로(영등포노회 화곡동) ▲회계 : 강상용장로(서울북노회 상신) <부>정종성장로(부산동노회 가나안).

### 제90회기 부총회장 이광선목사 인터뷰, 총회 돕는 일에 최선을 다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목회 일념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심정으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구인터불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서울노회 이광선목사(신일교회 시무)는 목회의 영역을 전국교회로 확대해 "목회하는 심정으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목회자로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회로 말문을 연 이 목사는 "90세된 어머니께서 혼자 두 아들을 모두 목사로 키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있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앞으로 목회하는 심정으로 부총회장의 직임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심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회장은 지난 1977년 신일교회를 개척해 28년간 오늘의 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 오늘날 전세계에 파송된 6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또 1백20여 농어촌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 부총회장은 부총회장 선거에 앞서 소견 발표를 통해 총회를 위해 반드시 실천할 두 가지 내용을 공약했다. 이 부총회장은 "전국 교회는 물론 총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통 장로교의 보수신앙에 따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회 각 부서 총무들의 사택 문제 해결'과 함께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1백여 명 이하의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회장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백주년이 되는 2007년을 교단 전체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2007년에 총회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될 그는 교단 차원에서 교회마다 사경회를 열고 또 회개운동을 비롯한 대성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단 내에 총회 연금재단이 설립돼 있는 것처럼 문화재단을 세워 복지문화를 통한 사회선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단이 복음으로 사회를 섬겨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고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이 일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이 부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의 기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힘없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도해주셨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1944년생인 이 부총회장은 장신대 65기로 졸업한 뒤 1974년 평양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내국교회를 거쳐 1977년부터 신일교회에 부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또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과 북한동포돕기후원회 실행위원, 총회 찬송가위원회 위원, 총회 도서의료 선교후원회 후원이사과 총회를 섬겼으며 장신대 성지연구원 후원이사과 우크라이나케이프신학교 이사장, 콩고민주공화국 루분바시기독대학 이사장, 한국의향선교회 훈련원 이사장, 서울시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이사장 등의 사회봉사활동도 감당해 왔다.

현재 이 목사의 가족은 부인 김정숙권사와 2남1녀가 있다.

##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 교인 7천명 장충체육관서 기도회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와 교인 7천여 명이 지난 11일 장충체육관에서 모여 기도회를 개최하고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 이탈측 가입 철회를 촉구했다.

총신대 신대원 77~96회기 회원 목회자와 교회 교인들은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교회와 총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 영입은 배교적 행위와 같다"고 선언하는 한편 "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및 제명출교된 목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교회 전체의 화합과 질서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오는 27~30일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되는 제90회 교단총회에서 이를 거부해줄 것을 촉구했다.

## 장로교신학회 제7회 학술발표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안용원) 산하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이종운)는 지난 10일 서울교회(이종운목사)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장로교회의 이해'를 주제로 제7회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구약과 신약 조직윤리 교회사 등 네 개 분과별로 진행된 이날 논문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은 개혁교회(장로교회)의 전통에서 볼 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발제자들은 교회가 국가를 향해 제사장적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윤리 분과에서 발제한 최윤배교수(장신대)는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 선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탈할 경우 성경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문발표회에서는 강사문 최윤배(장신대) 김정훈(천안대) 연규홍(한신대)교수가 발제하고 이태훈(에스라) 류호준(천안대) 허주(아신대) 김판임(한신대) 한성진(합신) 교수, 박종화(경동교회) 김재진(서울교회) 목사, 황우여의원(열린우리당)이 참석해 각각 논평했다.

## YWCA 생명사랑공동체 포럼



지난 8일 대한YWCA(회장:이행자) 사회개발위원회(위원장:차경애) '돌보기 위해 돌보지 못하는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생명사랑공동체 포럼을 갖고 "노인부양과 양육 등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여성의 몸을 끝까지 소진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경애 위원장은 "최근 치매 노모를 모시고 사는 딸이나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노모와 함께 자살 하는 등의 사건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면서 "돌봄과 배려,보살핌이라는 덕목은 오랫동안 여성적 가치로 규정되었고, 고유의 몫으로 부담지어져 왔다. 돌봄 노동은 사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부양에 있어 한국여성의 부담상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주부양자는 며느리로, 부장적인 부계중심의 가족체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효의 실천은 부자관계에서 기대되는 아들의 몫이라기보다 고부관계에서 기대되는 며느리의 몫으로 투사되고 표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 위원은 "노인부양자 1천11명 중 74.3퍼센트가 여성이었으며, 부양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남성보다 4.9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노인부양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가족들은 이러한 효행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외에도 "피로가 가중되면서 사회

적 접촉 단절, 사회적 역할 상실, 자아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지자체·민간부문의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실버산업 규모·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 △세대간의 통합 이루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지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과정에 노인 교육의 이해 실천 △대중매체 통해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의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돌봄 노동의 부담 방식과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윤실, 황우석교수 연구의 문제 지적하고 대안제시 천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이장규)이 황우석교수 주도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대안 제시와 윤리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전망이다.

기윤실은 이미 6월 9일 '황우석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조망'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고 지난 8월 17일에는 삼각지 기윤실 본부에서 내부포럼을 연 뒤에 생명윤리 운동을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부포럼에서는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내부 논의를 거처온 기윤실은 지난 14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배아도 생명이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인간배아를 두고 벌여지고 있는 '14일 논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생명윤리 운동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기윤실 산하 연구소의 김희경 책임간사는 "황우석교수의 과학적 성과에만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이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기윤실이 인간배아복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과학과 윤리의 균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간사는 "기윤실의 입장발표는 곧 인간

개체의 복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배아의 복제와 이종교잡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한 반대 선포와 더불어 앞으로 생명윤리운동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회 건강회복하자"

한국교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이 오는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교회의날을 준비해 온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이근복 문대골 김경남 등 8인)는 지난 1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행사를 통해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에큐메니칼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회의날 행사의 본행사는 10월 25, 26일 양일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 '정의평화 생명을 향한 평신도 성례전'을 주제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분별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과 선교적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출범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교회의 날을 통해 시대의 징조에 대응하며 우리가 지닌 희망에 관한 이유를 한국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존우물기

2005년 10월호 · 통권 제152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10월 1일